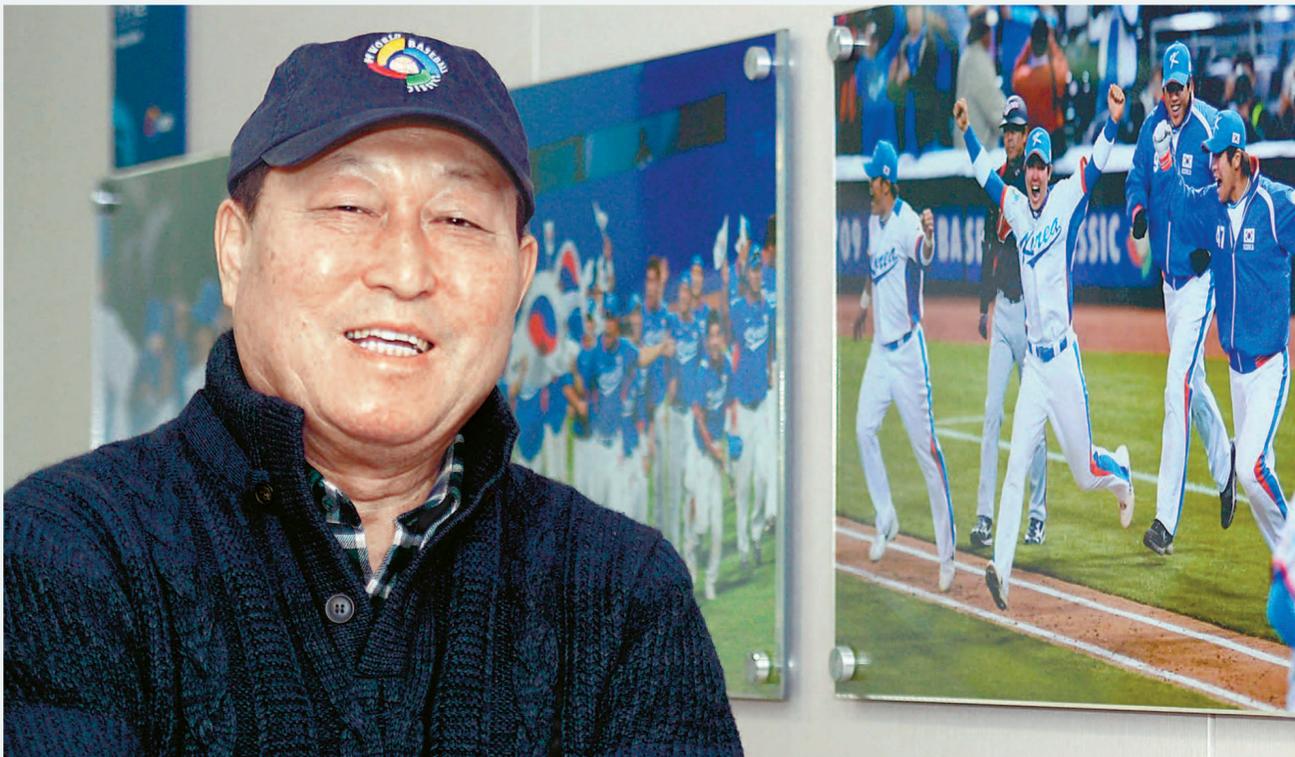


신년기획 | 다시 도전이다

## “오승환 꼭 필요한데...말을 못 하겠네”

WBC대표팀 김인식 감독의 진심...“젊은선수 뽑으라고? 국가대표는 연습이 아닌 전쟁”



‘국민감독’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기념 모자를 쓰고 나왔다. 인터뷰는 KBO에서 이뤄졌는데,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의 등 뒤로 한국야구의 영광이 담겨 있는 사진들이 늘어서 있었다. 2006년 제1회 WBC,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09년 제2회 WBC, 2015년 프리미어12의 감격 중 올림픽 금메달을 제외한 무려 3차례의 영광은 김 감독이 국민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제 김 감독은 “마지막 봉사”를 선언하고, 2017년 3월 제4회 WBC에 출정한다. 김정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

▲생년월일=1947년 5월 1일 ▲출신교=돈암초~배문중~배문고 ▲프로경력=크라운맥주(1965)~해병대(1966~1968)~한일은행(1969~1972) ▲지도자경력=배문고 감독(1973~1977)~상문고 감독(1978~1980)~동국대 감독(1982~1985)~해태 수석코치(1986~1989)~쌍방울 감독(1990~1992)~두산 감독(1995~2003)~한화 감독(2004~2009) ▲감독 통산=980승 1032패 45무 ▲대표팀 감독 경력=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금메달~2006년 WBC 4강~2009년 WBC 준우승~2015년 프리미어12 우승

김광현까지 수술...투수 포지션 가장 걱정  
추신수 출전지 강해...팀과 계속 협상중  
전력투수 걱정이지만 야구장 가면 다 잊어  
지금껏 그랬듯 무조건 부딪혀보는거!

인터뷰는 설위가 절반이다. ‘국민감독’으로 추앙받는 김인식(70) 월드베이스볼대표팀(WBC) 감독은 위상으로 놓고 볼 때, 설위가 수월한 레벨이 아니다. 기자의 기억으로 스포츠동아에서 김 감독과 송년·신년 인터뷰만 3차례 만났다. 2006년 제1회 WBC 4강, 2009년 제2회 WBC 준우승, 그리고 2015년 ‘프리미어12’ 우승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시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국야구 역사의 길목마다 김 감독은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2017년, 다시 김인식이다. 3월 열리는 제4회 WBC를 앞두

고, 인터뷰 요청을 넣었다. 이번에도 수락이었는데, 전에 비해 다른 느낌이 들었다. 단박에 “해가지”라고 말했다. 이번만큼 적극적인 적이 없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지도자 인생의 종착지를 앞둔 노(老) 감독의 가슴을 짓누르는 응어리는 무엇이었을까.

### ●국가대표팀은 책임지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곳

-요즘 같으면 ‘내가 이러려고 대표팀 감독 맡았나’ 하는 심정도 들겠습니다. (웃음)  
“[한참 웃더니] 내가 감독 (2016년 9월) 취임 인터뷰에서 ‘내년 2월까지 걱정만 있을 거다’라고 했었지. 그 말이 틀렸으면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어. 대표팀 감독을 여러 번 해봤는데 순탄한 적이 없었어. 어느 감독이 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위안삼아) 생각해.”

-감독님은 ‘덧셈의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팀 구성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선수만 있어서 걱정이 많겠네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골치가 아프지. 2월6일 최종 엔트리 발표인데 그때까지라도 (대표 후보 선수들이) 안 좋은 일들을 말아야지.”

-어느 포지션이 가장 걱정이세요?

“아무래도 투수가 가장 문제야. 몇 년간 오른손투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나마 왼손인데 김광현(SK)이 수월이야. 대체 멤버로 누가 와야 할지... 내야도 걱정이야. (웃음) (메이저리거 차출은) 사무국, 선수노조, 구단, 셋이서 타협하는 단계인데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이야. 재할 중이거나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선수는 구단이 관리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안 내보겠다는 뜻이겠지. (웃음) ▶2면으로 이어집니다

김정환 기자 gatzby@donga.com



오승환의 WBC대표팀 승선을 놓고 김광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원정도박 때문에 대표팀에 뽑아선 안 된다는 의견과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오승환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 취재파일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 영원한 주홍글씨는 없다 필승카드 오승환 뽑아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김인식 감독은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현역 메이저리거를 포함해 세계 최고의 선수가 출전하는 야구대회인 만큼 한국 최고의 마무리투수 오승환의 합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여전히 고심 중이다. 반대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뭇거리며 오승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오승환을 선발하는 것이 나야 보인다. 무엇보다 오승환을 선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선, 해외원정도박 선수라 안 된다? 물론 반듯한 이미지였던 오승환이 팬들을 실망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4년 벌어졌던 일로, 이미 법적 처벌이 끝난 사안이다. 지난해 1월 입장용(41·현 KIA)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야구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고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러 수 있다. 오승환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성실히 법적 책임을 이행했다. 또한 인터뷰 때마다 “팬들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해왔다. 스스로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홍글씨 때문에 영원히 대표팀 승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과거’가 문제라면 이전에 금지약물복용선수라 병역비리 등에 연루됐던 선수들이 법적 책임을 다한 뒤 WBC와 베이징올림픽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KBO리그에 소속된 선수가 아닌 추신수(35·텍사스)는 미국에서 한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번 WBC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다. 그런데 KBO리그에 소속되지 않은 오승환은 과거 해외원정도박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표팀에 뽑지 않고 있다. 같은 해외원정도박혐의로 징계를 받은 입장용은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에 승선했는데, 오승환을 대표팀에 발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스포츠동아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성인광고’를 실지 않습니다.

주최 스포츠동아·마중여행사

## 히말라야 만나푸르나 무스탕·푼힐 야생화트레킹 10일

{ 포카라 · 무스탕 · 카그베니아 · 묵티나트 · 푼힐 }  
2017년 3월 27일(월)~4월 5일(수)

### 네팔 만나푸르나 3대트레킹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엄선된 트레킹

- 신들의 땅, 은운의 왕궁 무스탕 트레킹
- 만나푸르나 라운드 트레킹
- 정통 로얄 트레킹 코스를 연결하여 한번에 히말라야 트레킹의 진수를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 옛 티베트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무스탕왕궁의 초입 줌숨·묵티나트

### 일출을 볼 수 있는 만나푸르나·다올라기리·차푸차레

### 투루체의 대표적인 설산 뷰포인트인 고라파니 트레킹·간드룽 트레킹

-최초 고산적응매 무리가 없는 최고고도인 줌숨 부터 트레킹을 시작, 고도가 점차 낮아지는 코스로 체력적인 부담을 최소화

### 주요일정

- 3월27일 카트만두 도착
- 3월28일 포카라 공항 도착 (포카라 페라호수 보트타기·데비복모·난민촌 방문)
- 3월29일 힌두교와 라마불교성지 묵티나트 사원답사, 트레킹 (포카라 공항 → 줌숨 공항 → 예글버타 → 카그베니아 → 묵티나트 → 카그베니아)
- 3월30일 카그베니아 → 줌숨 → 투쿠체(차푸차레) → 리르중 → 칼로파니(총산행시간 약 5-6시간 소요)
- 3월31일 칼로파니 → 가사 → 록세 → 다나 → 따포빠니(히말라야 노상온천 체험)
- 4월1일 따포빠니 → 가라 → 시카 → 팔라테 → 치트레 → 고라파니
- 4월2일 푼힐전망대 일출조망(2-3시간 소요) → 고라파니 → 데우랄리 → 반탄티(윈시림속 트레킹) → 타다파니 \* 만나푸르나, 다올라기리, 마차푸차레, 투쿠체, 날기리연봉, 티베트의 산 등 가장 아름다운 히말라야 고산 연봉 조망
- 4월3일 타다파니 → 간드룽 → 김체(차푸차레) → 나야올 → 포카라
- 4월4일 포카라 공항 출발 → 카트만두 시내투어 (전통사찰, 타펠시장, 쿠마리하우스, 몽키템플, 소양부나트 등)
- 4월5일 카트만두 출발 → 인천도착

\* 국제선 왕복항공료 외 택스, 국내선, 호텔(2인1실)·롯데(2인1실 혹은 다인실), 식사, 전용차량, 입장료, 인솔자(T/C), 셀카, 요리사, 포터, 팀, 보험료(1억)등 포함요금입니다.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개인경비 외 일체포함.

참가비 : 353만원 (스포츠동아 독자 및 가족 특별할인가 338만원)

참가문의 : 마중여행사(주)

TEL : 02-730-2270, 070-4177-2555

FAX : 02-730-7911 E-mail : judy4@naver.com